

서로에게 소식을 전함시다

동 정

◆ 이근표 前 서울경찰청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이근표 前 서울청장은 최근 ACI(국제공항협회) 태평양 지역 이사회 임원 자격으로 지역총회 참석 및 차기 개최지로 선정된 한국의 홍보를 위해 7일 일정으로 홍콩을 다녀왔다.

◆ 최인철 강원경우회장



최인철 회장은 최근 솔잎시 동인 10집 「大地의 솔잎들의 노래」란 시집을 출간했다. 10명의 동인들이 공동으로 낸 이번 시집에서 최 회장은 「빙어 축제」 등 7편의 주옥같은 시를 게재했다.

◆ 최중락 수우회장



수사출신 간부들의 모임인 搜友會를 맡고 있는 최중락 회장은 최근 최용석 마포신문사 사장과 함께 서울 기동단을 방문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 관리에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배 500 상자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 이용팔 前 대구경우회장



검도 8단인 이용팔 前 대구경우회장은 최근 차남 정수씨가 검도 8단에 승단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父子 검도 8단이 탄생했다. 지난 96년 10월 2일 8단으로 승단한 이용팔씨는 초등학교 5년때 검도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 시절에는 경찰무도대회에서 입상하는 한편 경북 검도회 전무이사, 대구시 검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검도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한편 이 前 회장은 최근 대구 경우회원 38명과 함께 4박 5일간 일본으로 단합대회 겸 관광여행을 다녀왔다.

◆ 이재춘 前 충북경우회장

이재춘 前 충북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全世 李氏 大同 宗伯院 충북도지원 제 51차 정기총회에서 當友院 제 19대



도지원장으로 피선되었다. 이 前 회장은 『임기 동안 종친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043-223-7069, 017-205-9364

◆ 이태기 회원 (컴동호회)



이 회원은 최근 「그리운 시골」, 「노인들 취미」란 2편의 수필로 제 140회 한국수필 신인 수상자료(등단) 선정 되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수필 공부를 했지만 글은 쓸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 회원은 『인생 후반기에 늦깎이 등단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02-913-0089, 011-9088-9966

◆ 박병두 경위 (수원 남부불 민원실장)



경찰 문인으로 잘알려진 박병두(42) 경위가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겪은 경험담을 소재로 장편 소설 「그림자 밝기」를 펴냈다.

지난 98년 「우리상자 속의 외출」에 이어 두 번째 발간한 이번 책자는 지난 90년 실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꾸민 소설로 “연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찰과 범인 사이의 대결,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지난 90년 「문학세계」를 통해 시인으로, 1992년에는 「월간문학」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이육사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 031-899-0224, 011-895-3259

前 치안총수 잇따라 별세

李康學 제 14대 치안국장



이강학 제 14대 치안국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 40분 숙환으로 별세(향년 82세)한데

이어,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에는 장일훈 제 2대 치안본부장이 역시

숙환으로 별세(향년 79세)했다.

故 이강학 치안국장은 지난 59년 3월

26일부터 60년 3월 28일까지, 故 장일

張日勲 제 2대 치안본부장



훈 치안본부장은 지난 75년 5월 26일부터 76년 1월 12일까지 각각 치안총수로 재직했다.

한편 구홍일 재향경우회장은 120만 재향경우들의 뜻을 모아 이들 두 전직 총수들의 빈소를 방문,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다.

주 소 변 경

◆ 전병조 회원 (부산경우회 이사)

부산시 동래구 온천 1동 152-18 트메이에르 동래타운 1804호
☎ 011-854-1239

◆ 박주환 회원 (前 부산경우회 부회장)

부산 금정구 부곡 3동 336-56 대우남산 이채롬@ 101동 1102호
☎ 011-848-7003

결 혼

◆ 고승규 중앙회 이사 (수원 경우회장)의

장남 태영 군이 지난 6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 경기 수원호텔 캐슬 1층 영빈관에서

☎ 031-227-2323, 017-354-3366

◆ 김석구 총경 (부산 해운대 서장)의 차

남 태선 군이 지난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범일동 하모니 웨딩타운 6층 오페라 홀에서

◆ 정원호 회원 (기우회)의 장남 인석 군이 지난 5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로얄 프라자 3층 사파이어 홀에서

☎ 031-396-8180, 011-9781-3018

◆ 박연후 의성경우회장의 장남 영환 군

이 지난 5월 21일 일요일 12시 경북 의성 귀빈 예식장에서

☎ 054-834-3757, 011-522-9156

◆ 이종환 회원 (기우회 부회장)의 장남

정우 군이 지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잠실향군회관 연리지 예식홀에서

☎ 031-712-9524, 011-320-9524

부 음

◆ 최병락 회원 (前 총경)이 지난 5월 1일

숙환으로 별세

☎ 02-989-0324

◆ 김광웅 회원 (前 성동경우회장)이 지난

5월 4일 숙환으로 별세

☎ 02-2297-0707

모 임 안 내

交友會



김우현 회장

현직에서 교통분야에 근무했던 경우들의 모임인 交友會는 오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2시 서울 용산역 앞 용사의 집

(☎ 02-793-3029)에서 금

년도 제 3차 모임을 갖고

모임의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에 주력하기로 했다.

• 회장 김우현 ☎ : 019-375-4975

서울 경찰학교 제 11기



조광섭 회장

오는 6월 20일 오후1시 경기 남양주 와부읍 월문리 계곡 이고을 봉춘산장

(☎ 031-577-5250)에서 금년도 3/4분기 임시정기 총회를 겸한 야유회를 갖고 조직발전과 회원 친목

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 회 장 조광섭 ☎ : 011-384-1341,

• 사무총장 이근보 ☎ : 017-564-5649

外友會

외사 출신들의 모임인 外友會는 오는 6월 9일 오전 12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소재 「펜션 하비비」에서 회원 단합모임을 갖는다.

• 회장 정원보 ☎ : 019-377-1306,

• 총무 조부호 ☎ : 011-389-8860

경우신문 원고모집

02-2234-1881



퇴임한 시·도회장에 공로장 전달 구홍일 중앙회장은 최근 퇴임한 시·도회장들을 초청해 공로장을 전달하는 한편 오찬을 함께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專門醫에 듣는다

퇴행성 관절염

— 조 세 행 박사 (연세 중앙 내과 의원)



한국은 대표적인 노령 국가 중의 하나로서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절염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를 수반한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요법과 보존적 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보존적인 치료는 다시 약물 요법, 주사 요법, 기타 요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현상과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질병 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의 예방 및 치료에는 경구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의 개선(체중 관리, 운동, 바른 자세, 좋은 식사 등) 등이 매우 중요하다. 관절염의 약물 요법은 진통-소염제의 경구 투여가 주류를 이루나 장기간 투약할 경우 소화성 궤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관절염이 호발하는 노령 층에서는 기존의 다른 질병으로 이미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들에게 관절염 약제를 곁들여 투약할 경우 약제의 독성 증가 및 예상 밖의 약물 상호작용으로 오히려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근래에는 연골 성분의 주사제를 관절에 주사하는 국소 주사 요법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이것 또한 근본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거나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 치료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도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인

생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처방약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임상적 효능을 가지는 우수한 생약이나 식품이 개발되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관절염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에 주로 사용되는 생약과 식품은 크게 동물성, 식물성, 그리고 미량 원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물 기원의 생약으로는 감마리놀렌산(보리자유, 산머루유, 달맞이꽃 종자유), 아보카도-대두유 혼합물(Unsaponifiable part of Avocado-Soybean), 터메릭(심황-카레), 미늘-생강, 고추 등이 있고, 동물성 기원의 생약으로는 초록입 홍합 추출물 오일(리프리놀),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 복합물 등이 있다.

이 중 효능 관점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한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리프리놀과 글루코사민, ASU 등은 임상 시험을 통하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유의한 효능을 가짐이 증명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품은 리프리놀인데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70% 이상의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세계 각국의 임상 시험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다른 성분의 생약들이 관절염에 효과적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향후 리프리놀을 비롯한 생약 성분의 허브, 건강 기능 식품 등은 관절염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기타 생약은 이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그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